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61>

JCCT 2021-5-7

유아교육 환경요인들이 유아 교사의 유아 권리 존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Behavior of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지미선*, 이신복**

Ji Mi-Sun*, Lee Sin-Bok

요약 과거 한국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 정도 역시 적었으나, 영유아 교육을 전문 기관 및 교사에 맡기는 경우가 차츰 많아지고 있다. 이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영유아 전문 기관 및 교사들의 부담은 늘어가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에 나타난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학대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권리가 존중받기 위해 어떤 요인들을 관리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고, 교육 환경을 크게 심리적, 업무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살폈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환경요인, 유아 교사, 아동 권리 존중, 교육

Abstract In the past, in Korea, women often played the role of caring for their children, and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as small. However, in recent years, more and more cases are entrusted to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teachers for infant education. These changes are positive in terms of gender equality and the enhancement of women's rights, but the burden on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teacher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is increasing. The problems of ab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hat have recently appeared in Korea are emerging as a new social problem.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which factors should be managed in order to be respected for the rights of children, and categorized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to psychological, work, and social factors to examine their influence and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Key words : Environmental Factors, Early Childhood Teacher,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Regression, Education

1. 서론

최근 한국에서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경제활동 등으로 유아 교육기관,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정회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복지·커뮤니케이션협동학과 (제1저자) Received: February 7, 2021 / Revised: March 31, 2021

**정회원,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신저자)

Accepted: April 10, 2021

*Corresponding Author: baby1018@hanmail.net

접수일: 2021년 2월 7일, 수정완료일: 2021년 3월 31일

Dept. of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 Korea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10일

국내 미취학 유아 인구수 대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비율은 73.1%이다[42]. 연령대별로는 구분해서 볼 때에 만 3세 90.0%, 만 4세 90.2%, 만 5세 90.4%에 달하는 유아가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고, 유아의 하루 평균 시설 이용 시간도 어린이집 7시간 24분, 유치원 7시간 12분이다[41].

이렇듯 유아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사의 소양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34]. 그러나 보육·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아 권리 침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성장과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인력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린 유아를 권리 주체자로 인정하고, 유아 발달의 다양성과 상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로 자아 존중감, 타인에 대한 인식, 도덕적 발달, 가치관 등 전 생애 발달 기초가 형성되며 유아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다[51]. 그렇기에 유아 교사에게 존중받은 경험은 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유아 교사들이 처한 업무환경은 다양하며, 개인이 가진 특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유아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에서 개인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환경[18, 35, 43], 업무적 환경[24, 26], 사회적 환경[5, 21, 23, 28, 32, 37, 46]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유아 교사의 변인에 따라 유아 교사들의 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실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 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상의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영향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의 다양한 환경요인이 실제로 유아 권리 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검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환경요인

유아 교사들이 가진 심리적인 요소들은 유아들에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면 유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2, 18, 43]. 조한숙과 이성복(2016)에 따르면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기에 유아 교사는 인간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긍정적인 심리 관점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긍정적 심리 요소는 도전에 직면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이끌어 내거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 내게 만들고[45], 자신의 업무를 보다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기에 회의감도 줄여 준다[18].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심리적 환경요인을 크게 자기효능감, 희망 등 2개의 요인으로 살피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의 사회 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부여, 행동 과정, 인지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의 확신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개인의 신념, 기대나 자신감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희망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와 성공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를 의미한다[49]. 최석봉(2018)은 희망에 대하여 “목표 성취나 성공적으로 계획을 수행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채익(2009)은 희망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해 주기에 어려움에 봉착 하여도 대안적 수단을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2. 업무적 환경요인

유아 교사들의 환경적 요인을 논의함에 있어 업무적인 환경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1]. 특히 유아 교사들이 놓인 부정적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29]. 언론에서 거론하는 유아 교사들의 업무환경들은 주로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아 교사들이 직무소진을 느끼게 하는 요인들이다[6]. 특히 유아 교사는 보다 어른의 입장에서 어린 유아들을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다[24]. 조성연과 구현아(2005)에 따르면 유아 교사는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시간, 정책적 지원의

부족,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의 업무적 환경요인을 크게 업무 과부하,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 등 2개의 주요 요인으로 살피고자 한다.

먼저, 업무 과부하는 유아 교사가 겪는 과도한 업무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을 말한다. 유아 교사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시간 부족, 자신의 능력과 한계 이외에 생겨나는 업무, 인력 부족과 빈번한 행사, 교사의 처우 및 제도로 겪게 되는 업무에 대한 부담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조직 내 동료 교사들과의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과 이로 인해 발생 되는 교사 간 의견 충돌 혹은 소통 부재, 불공정한 업무 분담으로 오는 갈등 등도 유아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업무적 환경요인이다[33].

3. 사회적 환경요인

유아 교사의 사회성, 즉 사회적 환경 요인 역시 유아 교육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만약 유아 교사가 유아의 감정과 정서에 관심을 갖고 공감해 준다면 이는 유아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27].

이상순(2008)에 따르면 공감 능력은 “타인의 내적인 경험 또는 심리상태, 주관적인 경험을 마치 나의 것으로 이해하며 느낄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공감 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낮은 유아 교사는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고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훈육 행동을 보이게 된다[28, 37]. 반면 공감 능력이 높은 유아 교사는 행복감, 직무만족을 느낀다[32, 46]. 본 연구에서 유아 교사의 공감 능력은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으로 구별하였다.

먼저 인지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과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40].

Davis(1980)는 인지적인 공감에 ‘상상하기’와 ‘관심 취하기’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상상하기란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상상하여 이해하는 경향성인데 비해 관심 취하기는 타인의 시점을 즉각 취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지 공감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타인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려는 경향이다[1].

다음으로 정서 공감은 타인의 기분을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13]. Davis(1980)는 정서 공

감을 개인적 고통과 공감적 관심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함께 부정적 경험을 느끼는 것이고, 공감적 관심은 그와 같은 타인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4. 유아 권리의 존중

유아 역시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권리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권리를 존중받은 유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50].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은 유아의 성장권·발달권·교육권·참여권 등을 보장해 주어, 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보살피고 교육하게 한다[19]. 오늘날 유아는 보육 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보육 기관 내에서, 특히 유아 교사들의 유아에 대한 권리 존중이 중요하다[51].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제시된 다양한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유아 교사의 심리환경요인과 유아 권리에 대한 존중 간의 관계이다. 유아 교사의 심리환경요인이 긍정적이라면 이는 유아의 권리 존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유아 교사의 긍정심리 자본 내지 자기효능감 등 긍정적 심리요인이 긍정적이라면 이것이 유아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 태도로 발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5, 30].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1: 유아 교사의 심리환경요인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1-1: 유아 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1-2: 유아 교사의 희망이 높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한편, 유아 교사가 처한 부정적 업무환경들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장애 요소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아 교사들은 유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14, 16, 17, 48]. 때문

에 유아 교사들이 처한 업무환경이 긍정적이라면 유아의 권리를 더욱 존중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2: 유아 교사의 업무환경요인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2-1: 유아 교사의 업무 과부하가 낮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2-2: 유아 교사의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가 적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유아 교사들의 사회성, 즉 사회적 환경요인은 유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2, 44]. 만약 유아 교사들이 타인에게 공감하는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높다면 이러한 태도가 유아의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3: 유아 교사의 사회적 환경요인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3-1: 유아 교사의 인지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가설3-2: 유아 교사의 정서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소재한 유아교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이나 직접 배부한 설문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중 482부(96.4%)가 회수되었지만, 불성실한 응답을 한 질문지를 제외한 460부(92%)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변인들의 측정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측정항목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심리환경요인 측정은 Luthans 등(2007)의 도구를 보완하여 빈안한 한혜영(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자기효능감 6개 문항(Cronbach's α .79), 희망 6개 문항(Cronbach's α .80)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업무환경요인의 측정도구는 D'Arienzo, Morraco와 Krajieski(1982)가 개발하고,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신혜영과 이은혜(200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업무 과부하 관련 8문항(Cronbach's α .85), 동료와의 관계 5문항(Cronbach's α .76)이고 통계적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 환경요인 Davis 등(1994)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박성희(1997)가 번역한 것을 참고하여 전병성(2003)이 재구성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 공감 15문항(Cronbach's α .73), 정서 공감 15문항(Cronbach's α .72)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마지막인 유아 권리에 대한 존중은 김진숙(2009)이 개발한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 실행'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40문항 중 적절성을 판단하여 39문항만 사용하였고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Cronbach's α .94). 이상의 모든 변인별 측정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었다.

3. 분석 도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분석과 더불어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제시된 주요 요인 간 인과관계를 살피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 별로는 20~30세 미만은 185명(40.2%), 31세~40세 미만이 207명(45.0%), 41세 이상은 68명(14.8%)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2~3년제) 졸업

이 169명(36.7%), 4년제 대학교 졸업 250명(54.3%), 대학원 졸업 41명(8.9%) 등이었다. 유아 교사 경력은 3년 미만 133명(28.9%), 3년~7년 미만이 200명(43.5%), 7년 이상이 127명(27.6%)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은 민간 어린이집이 162명(35.2%), 사립유치원 105명(22.8%), 국공립어린이집 98명(21.3%), 직장·법인어린이집 64명(13.9%), 국공립유치원 31명(6.7%) 등이었다.

2. 가설 검증 결과

앞서 제시된 유아 교사의 심리환경요인, 업무환경요인, 사회환경요인 등이 유아에 대한 권리 존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는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도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귀모형은 F 검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의미 해석이 가능한 수준이다($F=71.936, p<.001$).

종속변수인 유아에 대한 권리 존중에 미치는 영향력을 변인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심리적 요인들은 두 변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자기효능감($\beta=.243, t=4.600, p<.001$), 희망($\beta=.234, t=4.241, p<.00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무환경요인들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부정적 환경요인들인 업무 과부하($\beta=-.077, t=-2.792, p<.01$), 동료와의 관계($\beta=-.133, t=-4.896, p<.001$)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요인에 해당되는 요인들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즉, 인지공감($\beta=.154, t=2.470, p<.05$), 정서공감($\beta=.161, t=2.575, p<.01$)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면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자기효능감($\beta=.243$), 희망($\beta=.234$), 정서공감($\beta=.161$), 인지공감($\beta=.154$).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beta=-.133$), 업무 과부하($\beta=-.077$),의 순으로 유아의 권리 존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1. 변인 간의 인과관계 검증

Table 1. Verification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N = 460)						
독립변인	B	β	t	R2	adj. R2	F
(상수)	1.165		6.433 ***			
자기효능감	.243	.268	4.600 ***			
희망	.234	.253	4.241 ***			
업무 과부하	-.077	-.107	-2.792 **	.488	.481	71.936 ***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	-.133	-.186	-4.896 ***			
인지공감	.154	.120	2.470 *			
정서공감	.161	.125	2.575 **			

* $p<0.1$, ** $p<0.05$, *** $p<0.01$

V. 결 론

본 연구는 유아 교사의 다양한 환경요인들을 식별하고 이것이 유아들의 권리 존중으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환경요인들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아교사의 환경요인은 크게 심리적, 업무적,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유아 교사들의 심리환경요인은 유아들에 대한 권리 존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희망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영향력은 자기효능감, 그 다음이 희망의 순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기관에서 유아 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을 느끼도록 해 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준다면 현재의 유아 권리가 존중되고 나아지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둘째, 유아 교사들의 업무환경요인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에 대한 권리 존중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들이 처한 부정적 업무환경 중 업무 과부하와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를

중심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 영향력은 동료와의 부정적 관계가 더 높았고 그 다음이 업무 과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이 처한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유아들의 권리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셋째, 유아 교사들의 사회적 환경요인들은 유아들에 대한 권리 존중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사들의 사회성에 해당하는 인지 공감, 정서 공감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 그 영향력은 정서 공감이 더 영향력이 높았고 그 다음이 인지 공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교사들의 사회적 환경요인들이 긍정적일수록 유아들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하게 만들어 준다.

넷째, 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유아 교사의 심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제시된 독립 변인들 중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아닌 심리환경요인들이다. 물론 다른 요인들 역시 관리 및 다루어 나가야 할 요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심리적 요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유아 권리 존중에 미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통한 단순화를 통해 명확한 분석을 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향후 예측이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 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측정 방법을 취하였으나, 향후에는 관찰, 면담 등 보다 질적인 연구 방법을 통한 보완도 요구된다.

References

- [1] Bae, Sung-Kyu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self-control and children's stres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2.
- [2] Bandura, A,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 No. 3, pp. 359-373, 1986.
- [3] Cho, Song-yon, & Koo, Hyunah, "A Job Stress and Self-Efficacy of Child 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6, No. 4, pp. 55-70, 2005.
- [4] Cho, hansuk & Lee, Seong-Bok, "A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Gratitude Disposition to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n Happiness in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 34, No. 5, pp. 69-82, 2016.
- [5] Choi, Eun-a,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Empathy and Ethical Perception on the Personality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 pp. 821-846, 2016.
- [6] Choi, Jeong-lim, "The Effects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Humor Sense 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Myo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Master's Thesis, 2011.
- [7] Choi, Suk-B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Innovative Behavior :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of Self-leadership",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ol. 21, No. 2, pp. 165-187, 2018.
- [8] D'Arienzo, R. V., Morraco, J. C. and Krajewski, R. J, "Stress in teaching: A comparison of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factions between special education and regular classroom teachers", Washington,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2.
- [9] Davis, M. 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1980.
- [10] Davis, M. H., Luce, C., & Kraus, S. J, "The heritability of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disposi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Vol. 62, No. 3, pp. 369-391, 1994.
- [11] Ghim Hei-rhee, Chung Myung-Sook, Son Jung-woo, Park, Min, Eom, Jin-Sup, Moon Eun-ok & Yi Su-Mi, "The Relation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to Social Behaviors in Korean Children", The Korean Society For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6, No. 1, pp. 255-275, 2013.
- [12] Gil, Hyo-Jung, & Lee Young Joo,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atisfaction of the teaching practic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influenc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1, pp. 907-916, 2017.
- [13] Hoffman, M. L, "Toward a comprehensive empathy-based theory of prosocial moral

- development”, 2001.
- [14] Jang Da Hee, & Kim Sang-Lim,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Stress and Gri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5, No. 1, pp. 177–183, 2019.
- [15] Jeon Byung-Su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03.
- [16] Joo Eun-sun, & Kim, Joo-Young, “The Effects of Teachers’ Efficacy and Occupational Stress on Creative Attitude among Kindergarten Teacher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Focusing Manner–”,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2, pp. 1–18, 2014.
- [17] Kang, Yi Seul & Kim, Min Kyeo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 pp. 325–352, 2011.
- [18] Kang, You-Jung,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sychological Capital on Creativity and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24, No. 3, pp. 65–81, 2015.
- [19] Kim Jin Sook, & Suh Young-sook, “Care-giving Activities to Enhance Infants and Children’s Rights Respect : Based on Care-giving Teachers’ Recongnition of Their Activities to Increase Infants and Children’s Rights Respect”,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8, pp. 133–162, 2012.
- [20] Kim Jin-suk, “Meaning of care-giving for infants and children’s rights respect care-giving teachers, and its implementation standar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te Thesis*, 2009.
- [21] Kim Kyung-chul, & gim-eun-og, Kim Eun-ok, ,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11, pp. 729–736, 2018.
- [22] Kim Su Jin, & Kim Sang-Lim,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n Their Teacher-Child Interaction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6, No. 2, pp. 123–130, 2020.
- [23] Kim, Myoung Shin,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Empathetic Ability on Their Interaction with Infant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Master’s Thesis*, 2017.
- [24] Kim, Young Sil & Shin, Ae Sun & Kim, Sun Mi & Kwak, Kyeong Hwa, “The Effects of Ego-Resiliency on Job Satisfaction of Childcare Center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4, No. 1, pp. 73–90, 2014.
- [25] Ko Young Yun, & Shin Hyun Jung,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ing Teacher Efficacy and Psychological Burnout on The Practice of Childcare Respecting Rights for Infant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8, No. 4, pp. 27–38, 2018.
- [26] Koo, Eun-Mi, “(An) analysis of teacher related variables affect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program”,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 [27] Kwak Soo Ran, & Lee, Jin-Soon, “Effects of Sociality and Cognitive-Languag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5, No. 3, pp. 265–291, 2015.
- [28] Kwon Jung-Sook, You Jae-Kyung, & Jo Hye-Young,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bility and Self-Awareness on their Creative Personality :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0, No. 1, pp. 79–105, 2016.
- [29] Lee Chang-ho, & Jeon, Jeong-cheo, “Problems in media reports on child abuse and improvement measure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pp. 1–89, 2016.
- [30] Lee Dong-Su, “The Environment and Issues of Korea’s Childcare Polic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25, No. 1, pp. 43–63, 2006.
- [31] Lee Hye Sun, & Kang Cha Yeon, “Relationship among the Overuse of Cellular Phones, Attachment and Behavioral Problems in Middle Schoolers”, *Seoul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Vol. 20, pp. 79–95, 2007.
- [32] Lee hyekyoung, “Experienced Teachers’ Percep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Professionalism”,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4, No. 5, pp. 287–314, 2010.
- [33] Lee Ji Su, & Han Ji Su, “The Mediating Rol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Empathy and

- Job Satisfac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4, No. 6, pp. 175-194, 2020.
- [34] Lee So young, Lim Jae Tack, Kim Eunju, & Song Joo Eun, “A study on a developmental plan for korean-style forest kindergarten by analyzing the present statu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operational forest kindergarte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nationwide”,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4, No. 1, pp. 239-267, 2015.
- [35] Lee Young-Joo & Gil Hyo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ffecting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Practicum Stress -Focused on Child care Practicum learning environm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pp. 111-120, 2017.
- [36] Lee, Che-Ik,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Focused on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Attitudes-”, University of Ulsan Doctorate Thesis, 2009.
- [37] Lee, Hi-Eun, Kim, Hyun-Ick, Woo, Yean-Hee, Kim, Soon-Ho & Moon, Soo-Back, “A Structural Analysis of Child Care Teachers’ Negative Discipline Behavior and Its Related Variables-Focusing on Job Stress, Empathy, and Workplace Suppor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4, pp. 127-151, 2013.
- [38] Lee, Sang-sun, “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s’ Disciplinary Typ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eachers’ Sympathy Abilities, and Students’ Trust in Teachers”,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08.
- [39]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2007.
- [40]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icago, Vol. 111, 1934.
- [4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and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2018.
- [4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care statistics”, 2019.
- [43] Moon Myoung-ran,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Ego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on Their Childcare with Respect for Infants’ Rights”,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6.
- [44] Moon Young Kyung, & Choi Seon Nyeo, “Teachers’ Teaching Efficacy on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 Child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 15, No. 2, pp. 1-20, 2015.
- [45] Noh Jin Hyeong,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17, No. 2, pp. 73-93, 2013.
- [46] Park Jin-sung, “The Study on Variables which Affected Empathy and Happines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cused on Family Resilienc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 1, pp. 97-118, 2015.
- [47] Park Seong-hee,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 Seoul: MOONUMSA, 1997.
- [48] Shin Hye-young, & Rhee Unhai, “Effects of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Efficacy on the Quality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Child Car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6, No. 5, pp. 105-121, 2005.
- [49] Snyder, C. R,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Vol. 13, No. 4, pp. 249-275, 2002.
- [50] Suh Young-sook and Park Jin-OK & Suh Hye Jeon, “After-School Care an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0, No. 6, pp. 281-295, 2009.
- [51] Suh Young-sook, Suh Hye Jeong, & Kim Jinsuk, “Care-giving teachers’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demand for teacher education on respecting children’s rights in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 cent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13, No. 3, pp. 213-232, 2009.